2023.4·5·6

영락 오이코스와 함께하는

FAMILY DAY

<가정에서 예배함으로 말씀따라 행진하기>

✝ 예배하는 가정 행복한 우리집 ✝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

가정예배 서약서

가정예배 드리기로 서약해요!

서약서

우리는 가정예배 공동체로서 가정예배를 실천하기로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첫째, 우리 가정은 교회의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셋째,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_____ **서명**

목차
Contents

4·5·6월호 소개 - 가정에서 예배함으로 말씀따라 행진하기			04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해요			06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07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1-13주 실제)

14주	04.02 ~ 04.08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다	10
15주	04.09 ~ 04.15	있어야 할 자리	12
16주	04.16 ~ 04.22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14
17주	04.23 ~ 04.29	감사의 대상	16
18주	04.30 ~ 05.06	위를 바라보아요!	18
19주	05.07 ~ 05.13	내 자녀의 집	24
20주	05.14 ~ 05.20	함께 내려가세요	26
21주	05.21 ~ 05.27	어린이가 되는 법	28
22주	05.28 ~ 06.03	성령님과 함께해요	30
23주	06.04 ~ 06.10	하나님만 의지해요	36
24주	06.11 ~ 06.17	발을 내딛는 믿음	38
25주	06.18 ~ 06.24	살리시는 예수님	40
26주	06.25 ~ 07.01	누가 나의 이웃인가요?	42

가정에서 예배함으로 말씀따라 행진하기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삼상 12:24-

영락 오이코스와 함께 하는 패밀리데이가 2023년의 두 번째 책을 발간합니다. 지난 1, 2, 3월 동안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가 매일 매일 오이코스 말씀을 따라 행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다음세대가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같은 말씀을 붙들고 예배할 수 있었음에 더 감사했습니다. 4, 5, 6월에도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온 가족이 말씀따라 행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의 두 번째 패밀리데이 가정예배 책자는 4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사무엘상 ~ 열왕기하, 5월; 원포인트주간 말씀, 그리고 6월; 올해 표어인 '말씀따라 행진하여 가라'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4월에 만날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하여 역사서라고 불리는 책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의 분류법에 따르면 성경(구약)은 모세오경인 율법서와 선지서,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등의 지혜서로 구성됩니다. 4월 패밀리데이에서 다룰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는 어디에 속할까요? 오늘날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는 이 책들은 히브리 성경 분류를 따른다면 모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와 같은 선지서에 속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선지서의 특징이 똑같이 사무엘상 ~ 열왕기하까지의 책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 중에서 왕을 구하였던 악한 일부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음란하였던 죄악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역사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온전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4월의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우리 가정의 왕이심을 다시 한 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했던 영적인 실수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자녀들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왕 되심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말씀으로 구성됩니다. 특별히 5월 패밀리데이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가족주일, 교육주일로 구성되어 있는 원포인트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온 가족이 같은 말씀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부모님들이 주일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자녀들은 교회학교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게 될 텐데, 이 말씀은 패밀리데이 가정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온 식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는 한 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가르친다고 하여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엡 2:8).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무를 것을 통해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아이들의 일상이 시작되는 곳인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의 패밀리데이는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6월 패밀리데이를 통해서는 우리 가정이 더욱 말씀따라 행진할 수 있도록 결단하며 예배합니다. 2023년 영락교회 표어 '말씀따라 행진하라'를 가정에서 다시 한 번 결단하며 상반기 패밀리데이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되심이 선포되고, 말씀이 왕성히 증거될 때 우리의 모든 가정이 말씀따라 행진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패밀리데이 가정예배책자'는 오이코스 묵상집의 순서에 따라 자녀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의 매일의 묵상은 패밀리데이 가정예배책자를 통해서 가정에서 더욱 풍성해 질 것입니다.

"매 주일 자녀들과 함께 앉은 가정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서로 가족 됨의 기쁨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 됨을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며, 가정의 모든 일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여 형통케 하고, 나아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소명을 이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오이코스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해요

가정예배를 통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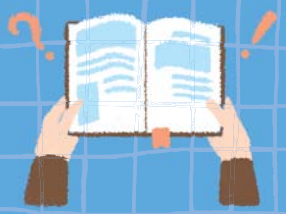
1.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2. 부모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며
3.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4. 자녀를 다음세대의 예배자로 세워나간다.

우리 가족 약속

온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요일, 시간,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합니다.
(예: 거실, 부엌식탁 등)

1. 예배인도자는 기도자를 정하고, 예배에 필요한 주제송 음원과 예배자료집을 미리 준비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www.youngnak.net)
2.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 자녀가 없는 부부 가족이나 일인 가족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가정예배 에티켓
   1)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립니다.
   2) 휴대폰과 TV는 꺼둡니다.
   3) 자리에 바르게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1 찬양

주어진 찬양을 가족과 함께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달의 찬양 〈내 마음의 한자리〉 11p

2 말씀읽기 (개역개정)

한 주간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족과 함께 읽습니다.
가족이 다함께 또는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말씀읽기 - 민수기 12:3

3 생각하기

말씀을 중심으로 주어진 질문에 답해봅니다.
가족의 생각과 다짐을 함께 나눕니다.

생각하기

4 말씀듣기

말씀의 배경을 함께 알아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내용을 읽어주며, 다른 가족은 경청합니다.

말씀듣기

5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며 기도로 마칩니다.
가족의 기도제목을 적고 주어진 기도제목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4 APR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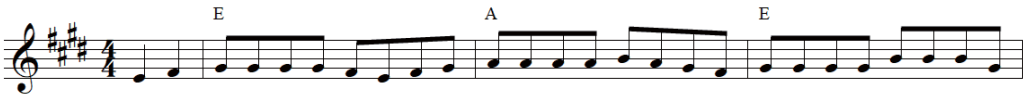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2 종려· 고난주일	3	4	5	6	7	8
9 부활주일	10	11	12	13	14	15
16 한경직목사 기념주간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예배하는 가정 행복한 우리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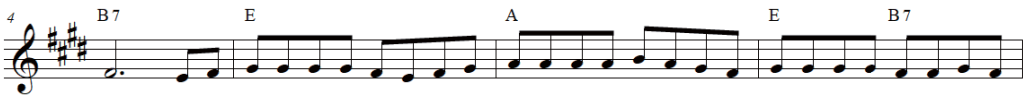
이달의 찬양

나의 발은 춤을 추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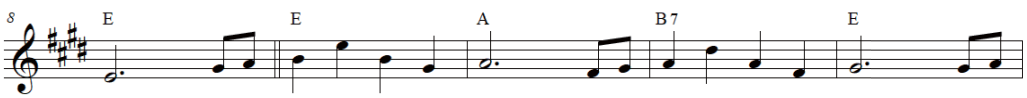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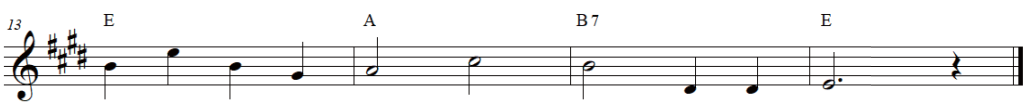
나 의 발 은 춤 을 추 며 나 의 손 은 손 뼉 치 며 나 의 입 은 기 뻐 노 래 부 르



네 나 의 발 은 춤 을 추 며 나 의 손 은 손 뼉 치 며 나 의 입 은 기 뻐 노 래 부 르



네 내 가 주 께 찬 양 해 내 가 주 께 찬 양 해 내 가
내 가 주 께 춤 을 춰 내 가 주 께 춤 을 춰 내 가
내 가 주 께 노 래 해 내 가 주 께 노 래 해 내 가
내 가 주 께 손 뼉 쳐 내 가 주 께 손 뼉 쳐 내 가



주 께 찬 양 하 며 주 사 랑 해
주 께 춤 을 추 며 주 사 랑 해
주 께 노 래 하 며 주 사 랑 해
주 께 손 뼉 치 며 주 사 랑 해

4/2-8
1주 가정예배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다

사무엘상 16:13

이달의 찬양 〈나의 발은 춤을 추며〉 9p

말씀읽기 - 사무엘상 16:13

13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생각하기

Q1. 최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느낀 때는 언제인가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나눠봅시다.

Q2.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듣기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고 그를 살려 보냈습니다. 시므이가 자신을 향해 욕과 저주를 퍼부을 때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라 고백하며 맞서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하며 살았던 다윗 왕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기름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불안함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이 없애라고 하신 것은 없애지 않고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며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는 수많은 백성들을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본인도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우리의 삶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친구가 미울 때가 있을지라도 친구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지 말라고 한 것이 있다면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 이웃을 건강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을 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메시지를 따라 살아나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4/9-15
2주 가정예배

있어야 할 자리

사무엘하 11:1

이달의 찬양 〈나의 발은 춤을 추며〉 9p

말씀읽기 - 사무엘하 11:1

01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생각하기

Q1. 오늘, 지금, 여기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Q2.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아요.

말씀듣기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기 위한 자리를 지켜야합니다. 그 자리는 학교가 되기도 하며 집이 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합니다. 그 자리는 교회가 되기도 하며 집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함에 있어서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 왕은 오랜 세월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켰지만 오랜 승리 속에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은 왕들의 전쟁에 나가야하지만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지요. 이 때 다윗의 마음에 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악한 마음이 커진 다윗은 결국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이 끔찍한 죄를 덮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있어야할 자리를 지키지 않자 죄가 싹트고, 이 죄가 또 다른 죄를 가져오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있어야할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사람의 마음에 죄가 싹트고 결국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곧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하십니다.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지켜가길 소망합니다. 그 때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를 잠시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 오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할 자리와 지켜야할 자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4/16-22
3주 가정예배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열왕기상 8:10-11

이달의 찬양 〈나의 발은 춤을 추며〉 9p

말씀읽기 - 열왕기상 8:10-11

10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11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생각하기

Q1.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계실까요?

Q2.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해주고 싶어 하실까요? 자유롭게 나눠봅시다.

말씀듣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멋진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다른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며 영원히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약속하십니다. 시간이 흘러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고자 성전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성전이 다 지어지자 하나님은 그 성전에 거하시며 영광을 가득히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 속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가득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저희 가정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우리 가정에 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되게 인도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4/23-29
4주 가정예배

감사의 대상

열왕기하 5:16-17

이달의 찬양 〈나의 발은 춤을 추며〉 9p

말씀읽기 - 열왕기하 5:16-17

16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17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생각하기

Q1. 엘리사는 왜 나아만 군대 장관의 예물을 거절했을까요?

Q2.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할 분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듣기

'감사'는 고마움을 느끼거나, 보답하고 사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고마움을 느끼고 보답하고 싶은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해야할 대상을 바르게 알려주는 엘리사와 감사해야할 대상을 찾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예전에 아람을 구하여 '큰 용사'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왕에게도 인정받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센병이라는 피부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나아만은 이 병을 어떻게든 치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치유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왕의 편지와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나아가 선지자를 만납니다. 선지자를 만난 나아만은 그토록 바라왔던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너무나 감격스러워 하며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준 엘리사에게 값비싼 물건들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병을 고쳐주신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순간만이 아니라 원래 내가 살던 곳에 돌아가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인 것이지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려주고, 또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환기시켜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4/30-5/6
5주 가정예배

위를 바라보아요!

열왕기하 25:27

이달의 찬양 〈나의 발은 춤을 추며〉 9p

말씀읽기 - 열왕기하 25:27

27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삼십칠 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십이월 그 달 이십칠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생각하기

Q1.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Q2.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듣기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배신을 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과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긴 왕을 이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을 배반하고 도망가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몇 차례나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자 유다 왕국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때에 하나님은 희망을 주셨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왕이 잡혀간 지 3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무렵, 하나님은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다시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들도 어렵고 힘든 순간에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 틀렸어!", "나는 이제 일어설 힘이 없어." 하는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메모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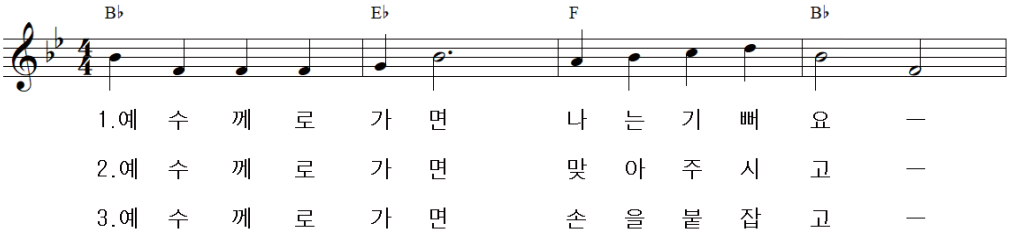
5 M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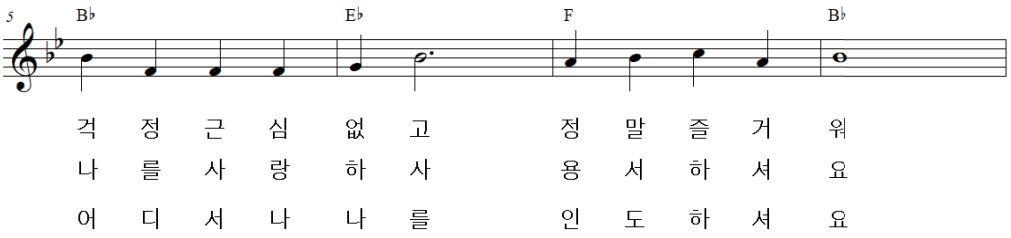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2	3	4	5 어린이날	6
7 어린이· 어버이주일	8	9	10	11	12	13
14 가족주일	15	16	17	18	19	20
21 교육주일	22	23	24	25	26	27
28 성령강림 주일	29	3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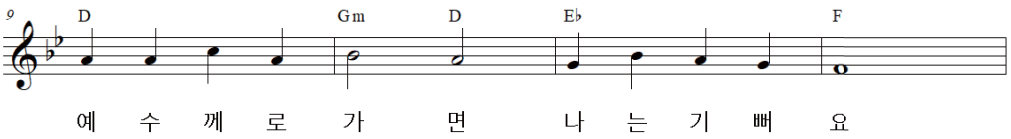
이달의 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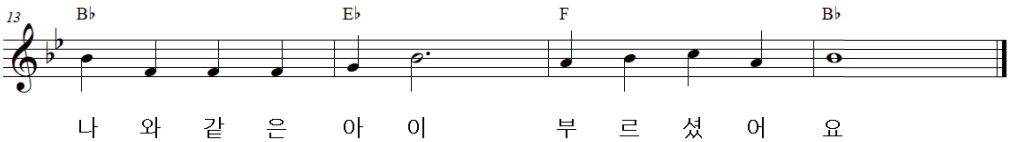
예수께로 가면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5/7-13
1주 가정예배

내 자녀의 집

누가복음 2:41-52

이달의 찬양 〈예수께로 가면〉 23p

말씀읽기 - 누가복음 2:41-52

41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42 예수께서 열두 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43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45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6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48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1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생각하기

Q1. 주일 아침 교회에 갈 준비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Q2.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참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믿겨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말씀듣기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매 해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살이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 가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오던 길을 되돌아 가보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음에 안심하며 왜 따라오지 않고 여기 있었냐고, 아빠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고 이야기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자리로 인도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는, 그런 부모님께 감사하며,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와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

부모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이 아닌 교회로 나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아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5/14-20
2주 가정예배

함께 내려가세요

누가복음 2:41-52

이달의 찬양 〈예수께로 가면〉 23p

말씀읽기 - 누가복음 2:41-52

41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42 예수께서 열두 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43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45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6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48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1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생각하기

Q1.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머무르셨어요. 내가 가장 머물기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왜 그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지 이야기 해보세요.

Q2.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정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듣기

유월절이 되자 예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기념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가던 길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없어진 것입니다. 가족들은 애태우며 사방팔방으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서야 겨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태연하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잘 따라오지 않고 여기에 있었던 거니.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예수님은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요?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더 머물러도 되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부모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주십니다.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내려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반응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주님되심을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결국엔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며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는 우리 가정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동행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과 함께하며 순종하고 효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5/21-27
3주 가정예배

어린이가 되는 법

마태복음 18:1-4

이달의 찬양 〈예수께로 가면〉 23p

말씀읽기 - 마태복음 18:1-4

01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02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03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0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생각하기

Q1. 어린 아이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Q2. 거듭난 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달라져야 하는 마음과 행동은 무엇인가요?

말씀듣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요?"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떤 사람이 큰지, 곧 인정받고 대접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불러 한 가운데 세우시고 "이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약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는 사람을 순수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욕심이 없으며, 부모와 윗사람에게 순종적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느 날 저녁 니고데모라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서 존경과 인정을 받던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보이신 표적을 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3:3"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외에 또 다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생각, 마음, 기준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모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나요? 거듭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하나님, 높아지려고만 하는 시대에 나의 욕심과 자랑을 버리고 날마다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을 부어주세요. 매일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만을 오직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5/28-6/3
4주 가정예배

성령님과 함께해요

로마서 8:26-28

이달의 찬양 〈예수께로 가면〉 23p

말씀읽기 - 로마서 8:26-28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생각하기

Q1. 요즘 내가 가장 무서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일까요?

Q2.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말씀듣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혼자서 이겨나갈 때도 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견디기 어려워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날 때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잘 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또 괴롭고 슬플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서 탄식 하시며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고, 인도해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메모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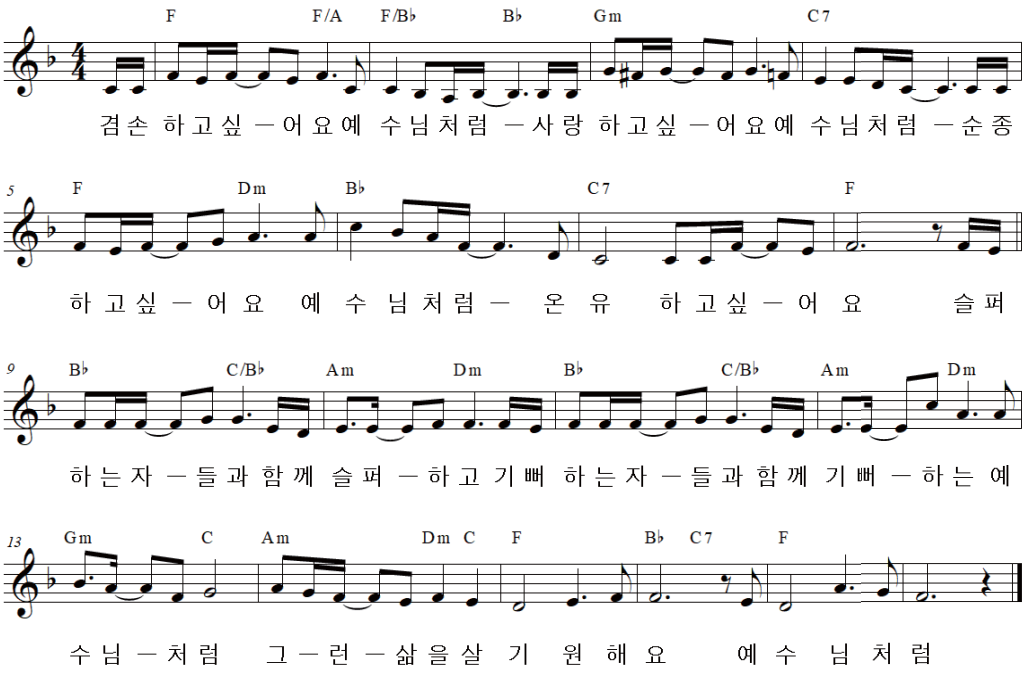
6 June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2	3
4	5	6 현충일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북한선교주일	26	27	28	29	30	

이달의 찬양

예수님처럼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6/4-10
1주 가정예배

하나님만 의지해요

에스라 8:21-22

이달의 찬양 〈예수님처럼〉 35P

말씀읽기 - 에스라 8:21-22

21 그 때에 내가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2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생각하기

Q1.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Q2. 평소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면서 위급할 때만 그분을 찾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말씀듣기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도 있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나 의지가 되는 사람을 찾곤 하지요. 도움을 구하는 대상은 부모님, 친구, 선생님, 기술자나 전문가 등 다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나 불안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스라는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의 마음에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남아 있었는데요. 바로 예루살렘까지는 먼 여행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노약자와 어린 아이들도 있었으며, 그들은 페르시아 왕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값진 예물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행길에는 도적 때들이 자주 출몰하곤 했는데, 많은 귀환자들을 이끌고 있는 에스라로서는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 없었겠지요.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실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자신들을 도적으로부터 지켜 줄 군대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가 이전부터 페르시아 왕에게 "하나님을 찾는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페르시아 왕에게 적군을 막을 군대를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에스라와 같이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그분이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더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이제 에스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6/11-17
2주 가정예배

발을 내딛는 믿음

여호수아 3:15-16

이달의 찬양 〈예수님처럼〉 35P

말씀읽기 - 여호수아 3:15-16

15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 가에 잠기자
16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생각하기

Q1. 내 신앙의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Q2. 장애물을 앞에 두고 있는 내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말씀듣기

오래 전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터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행진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날은 강물이 세차게 흐르는지라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앞길이 막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로 발을 내딛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말씀을 따라 강물에 발을 올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강물이 멈추고 강이 갈라지며 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강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이 된 강바닥을 무사히 건너가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장애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단강을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가야할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 때에 우리는 상황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장애물에 압도되기보다, 장애물을 치우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6/18-24
3주 가정예배

살리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6:9-10

이달의 찬양 〈예수님처럼〉 35P

말씀읽기 - 누가복음 6:9-10

09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10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생각하기

Q1.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자유롭게 나눠보세요.

Q2. 요즘에 좋아지기를 바라는 일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회복해주시기를 가족과 함께 기도해보세요.

말씀듣기

하나님은 쉬는 날도 없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괴롭힘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하루는 푹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요. 이 말씀은 고된 노동에 지치며 죽어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된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잊혀지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주셨던 안식일인데, 생명을 살리는 일도 막는 안식일이 되고 만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쉬라고 했으니 그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살리는 일일지라도 쉬어야 하니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 치료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열심은 좋았지만, 그 방향이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고 말씀하시며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신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우리의 열심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나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생명이 흘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며 살리고, 함께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헤아려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권세가 있는 가운데 생명이 흐르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가정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6/25-7/1
4주 가정예배

누가 나의 이웃인가요?

누가복음 10:36-37

이달의 찬양 〈예수님처럼〉 35P

말씀읽기 - 누가복음 10:36-37

36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생각하기

Q1.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웃은 누구 인가요?

Q2. 북한에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듣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이고, 어떤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 할 수 있을까요?

한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이냐고 질문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을 벗김 당하고 맞기까지 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자리를 피하고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고자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회복할 때까지 돌보아줬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누가 강도만난 사람의 참된 이웃이냐고 물어보시며 진짜 이웃에 누구인지 율법교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웃은 내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윗집과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북한선교주일입니다. 북한선교주일을 맞아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탈북해서 남한으로 온 자유인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더 깊이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일을 이루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하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

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웃인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가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메모 MEMO

발행통권 | 36호
발 행 일 | 2023년 4월 1일
발 행 인 | 김운성
기 획 인 | 방덕종, 박홍준
편 집 인 | 양동욱
디 자 인 | 한수진
집 필 진 | 영락교회 교육부 교역자
주 소 |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 02-2280-0131
발 행 처 |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본 책의 내용은 무료 배부 됩니다. (www.youngnak.net)
책의 내용을 사용시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저작'임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